

3.공사 중인 주변 풍경을 보고 박예나의 작업 맥락을 아는 나로써 이번 전시 장소를 매우 잘 찾았다고 생각함.  
'우와 대박이다.ㅎㅎㅎ'

제개발 부지

전시장

1.버스에서 내려 전시장 찾아나선 시간

4.아파트 공사장 사진을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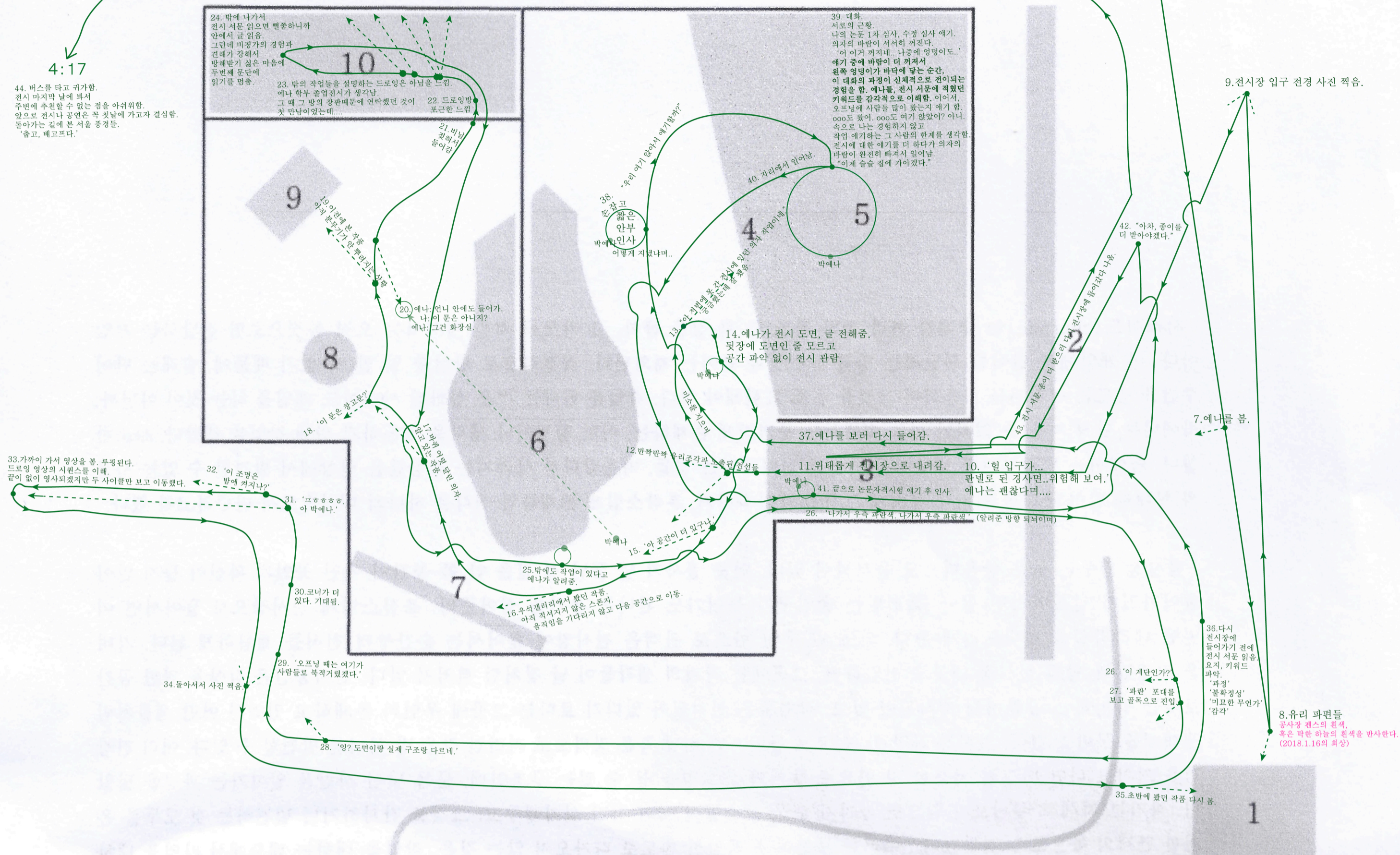
2.갤러리 같은 간판을 발견 하지만 여기가 아니다.

박예나 개인전  
Park Yena Solo Exhibition

5. '앗, 예나 작업, 유리조각.'  
(전시장 발견.)

6. '이거 작업이겠지?' 옆에 있는 재건축 펜스와 연결되어 보이게 설치된 전시장 앞 펜스 발견. 머리 속에 제개발 공사장 부지의 넓은 스케일로 전시의 영역이 확장되는 상상 **이탈을 위한 움직임** Movement for a breakaway

44. 버스를 타고 귀가함. 전시 마지막 날에 피서 주변에 추천할 수 없는 장을 아리워함. 앞으로 전시나 공연은 꼭 뒷날에 가고자 결심함. 돌아가는 길에 본 서울 풍경들. '출고, 테코프다.'



1. 잠깐의 마주침에 의한 풍경조각 일부
2. 전시장 가림막, 공사장 가설재 rpp방음판, 쇠파이프 등, 300 x 700(cm), 2017
3. 조심스럽고 위태로운 반가움, 합판, 160 x 98(cm), 2017
4. 바닥을 다지기 위한 짜집기, 각목, 합판 등, 220 x 365(cm), 2017
5. 적당함을 위한 소파 테이블 세트, 우레탄 비닐, 튜브, 인플레이터, 모터, 아두이노, 고무, 각목 등, 가변크기, 2016
6. 잠깐의 마주침에 의한 풍경조각, 깨진 거울 조각, 모터, 아두이노, 합판 등, 가변크기, 2017
7. 양방향(왕복)을 위한 구조, 수세미, 양동이, 드라이기, 센서, 모터, 아두이노, 각목 등, 150 x 130(cm), 2017
8. 제자리를 맴도는 스톨, 회전바퀴, 모터, 아두이노, 목재 등, 30 x 30 x 58(cm), 2017
9. 증발을 위한 상호적 구조, 다리미, 분무기, 센서, 아두이노, 각목, 합판 등, 22 x 30 x 120(cm), 2017
10. 드로잉 방, 2010년도부터의 드로잉들, 합판, 70 x 348(cm), 2017
11. 이중적 순간의 반복, 드로잉 애니메이션, 30초 반복재생, 2017